

[KACPR] 격오지(울릉도) 심폐소생술 교육지원 사업

김 호 중 홍보위원회 간사, 순천향의대 응급의학과

●●● 2012년 6월 11일

월요일 새벽 2시 영등포역을 출발하여 버스로 3시간 반, 그리고 배로 3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울릉도. 분명 곳곳에 쓰여 있는 한글을 보니 대한민국 땅이 맞는데 왠지 미지의 땅을 여행 온 것 같은 설레임과 흥분이 가시질 않는다. 상쾌한 공기과 더불어 미리 예약된 펜션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꾸불꾸불한 길을 따라 불과 5분여를 차로 이동하니 망망대해가 펼쳐지며 아름다운 속소가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여유를 부리기에는 우리를 기다리는 많은 이들이 있었다.

숙소에서 울릉도 나물에 머물러진 비빔밥을 한 그릇 똑딱 비우고 강사복을 갈아입은 뒤 서둘러서 이동하였다. 좁은 길을 따라 어렵게 작고 귀여운 체육관을 찾고, 교육지원청을 찾아 나섰다. 미리 보내어진 많은 실습 기자재를 보고 있자니 이걸 언제 다 옮기나 답답해지기 시작했다. 암튼 선발대의 임무임을 인정하고 모두들 열심히 체육관으로 옮겨서 1시간여 21개의 실습세트를 완벽하게 설치하였다.

●●● 오후 2시

약속대로 학생들의 소리가 골목 끝에서부터 요란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선생님의 인솔하에 몰려오는 아이들을 앞에서 안내하며 '이제 시작이구나'라는 각오를 다지게 되었다. 하나둘씩 인원을 체크하고 준비한 DVD자료를 나눠주는 데 아직 학생들은 이곳에서 뭘 하려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

자리를 배정하여 앉히고 오늘의 책임강사가 강의를 시작하였다. 어수선하다. 하지만 항상 그렇듯이 몇분이 지나면 이들도 알게 될거다. '아..참 중요한 것을 오늘 배웠구나!!' 라고.

산악지역으로 이뤄진 이곳은 기본적으로 오르막길이 많고 어업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많은 관광객들이 내방하는 관계로 관련 업체에 종사하는 지역주민, 이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펜션에서 만난 63세 이모 할머니는 청주가 고향이다.

7년 전 우연히 이곳, 울릉도에 터를 잡고 살기 시작하였다. 펜션에서 음식을 해주며 외국인들에게 울릉도를 알리는 일을 하시는 할머니에게 이곳 울릉도의 상황을 들을 수 있었다.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이곳에서 환자 발생은 많지만 적절한 치료가 이뤄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심정지가 발생하는 환자도 많지만 의료원만 하나 존재하는 이곳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는 기대하기 힘들고 차량이 많아지지만 길이 고불하고 좁아서 가지가지 응급상황이 발생하고 치료가 늦어지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랐다고 한다. 의료원에 올해 초 근무를 시작한 한 응급의학 전문의는 환자 발생은 많지 않지만 현장에서 적절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태이고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깝지만 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응급의료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고 하였다. 울릉도, 이곳에서도 자라나는 꼬나무들이 많다. 초등학교 6개, 중학교 4개, 그리고 고등학교가 1개가 있고 점점 학년이 올라갈 수록 육지로 빠져나가는 하지만 1개 있는 고등학교에 학생수가 180명이 넘는다. 또한 이곳에 파견된 군인들도 많기 때문에 올바른 교육이 중요한 결실을 맺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진행된 사업은 사단법인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격오지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지원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첫회를 맞이하는 이번 사업에서 많은 고민 끝에 울릉도를 사업지로 선정하였다. 교육의 기회를 자주 갖기 힘든 지리적

여건 등이 반영된 이번 선정으로 울릉도에 심폐소생술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다. 1기와 2기 두팀을 나눠 심폐소생협회의 책임강사 총 13명이 교육 및 기념사업을 위해 출발하였다. 울릉도 교육청 등의 지원을 받아 울릉도 체육관에서 1회 교육당 54명의 정원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하게 되었고 두 기수가 모두 모이게 되는 13일에는 레이달사와 필립사에서 자동제세동기 10대를 기증하는 행사를 이곳 기관장들을 모시고 진행하였다.

교육일정과 팀구성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 교육장소 : 울릉군 학생체육관

◎ 교육일정

차수	교육일자	교육시간	교육대상	교육인원
1	6월 11일	14:00~17:00	울릉고 1학년	1회 교육당 54명 정원
2		09:00~12:00	울릉초 4,5학년	
3	6월 12일	13:00~16:00	서중,북중 1,2,3학년	
4		18:00~21:00	군인	
5	6월 13일	09:00~12:00	울릉초,저동초	
6		14:00~17:00	울릉중 1,2학년	
7		09:00~12:00	저동초 5,6학년	
8	6월 14일	13:00~16:00	울릉고 2학년	
9		18:00~21:00	군인	
10	6월 15일	09:00~12:00	남양초, 천부초	

◎ 팀구성

교육일시		소속	강사	POSITION	비고
1팀 6/11~13 (5회)	1	BLS Faculty	조규중	응급의학전문의	팀장
	2	BLS Faculty	김강남	간호사	
	3	BLS Faculty	장용수	응급의학전문의	
	4	BLS Instructor	김성해	간호사	
	5	BLS Instructor	백경민	응급구조사	
	6	BLS Instructor	송민정	간호사	
	7	BLS Faculty	김호중	응급의학전문의	
2팀 6/13~15 (5회)	1	BLS Faculty	송근정	응급의학전문의	팀장
	2	BLS Faculty	임훈	응급의학전문의	
	3	BLS Instructor	김재희	응급구조사	
	4	BLS Instructor	김창환	간호사	
	5	BLS Instructor	강은아	응급구조사	
	6	BLS Instructor	정문진	임상병리사	

이들에게 올바른 심폐소생술을 가르치는 것은 그만큼 이지역의 응급의료에 대한 인식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며 이곳의 응급의료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교육사진 1.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있는 초등학생



교육사진 2. 자동제세동기 교육을 받고 있는 중, 고등학생들



교육용 기자재와 자동 제세동기 기증식. 왼쪽부터 최수일 울릉군청 최수일 군수, 이중의 대한심폐소생협회 교육위원장, 김종삼 필립스 상무, 박태훈 레이달 대표 이사